'환경을 사랑하는 그린 어워드 트로피 수상! 햇살 담은 데일리 와인 '

선라이즈 까르미네르

Sunrise Carmenere

지역	칠레 〉센트럴 밸리		
포도품종	까르미네르 100%		
알코올	13.5%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5-18℃		
테이스팅 노트	보라빛이 감도는 강렬한 레드 컬러로 자두와 같은 건과일류의 달콤한 향과 초콜렛, 후추, 바닐라 향 등 다양한 향을 가졌다. 파워풀한 구조감과 부드러운 탄닌의 질감이 잘 어우러져 완벽한 균형감을 보이는 와인이다.		
페어링 TIP	육류/ 붉은 살 생선/ 단단한 치즈/ 훈제,염장 음식/ 밀가루 음식		

당도 DRY 1 2 3 4 5 SWEET

바디 LIGHT 1 2 3 4 5 FULL

제품설명

300일이 넘는 일조량 아래에서 햇살을 가득 머금고 자란 포도로 만들어지는 '선라이즈'는 자연이 주는 생동감과 기쁨을 여실히 전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햇살 닮은 와인이다. 환경을 미래 후손에게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콘차이토로가 에코 프로젝트 시스템을 적용한 와인으로 2011년 와인산업 평균보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약 40% 절감하게 된다. 이러한 콘차이토로의 노력으로 세계적인 주류산업전문지 드링크 인터내셔날 그린 어워드(Green Awards)에서 트로피를 수상한 친환경 와인이다.

와이너리

1883년 설립된 콘차이토로는 남미의 대표 와이너리로 현재 전세계 147개국에 수출 되고 있는 세계 시장을 선두하는 와이너리이다. 1997년 프랑스 특급 와인의 자존심인 샤또 무똥 로쉴드의 바롱 필립 가문과 조인트 벤처로 알마비바를 출시하여 칠레 울트라 프리미엄 와인의 장을 연 콘차이토로는 10,800헥타르가 넘는 빈야드를 칠레 뿐 아니라 미국, 아르헨티나 등 다양한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또한 세계적인 전문지 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세계 최고의 존경 받는 와인 브랜드'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에는 최고의 와이너리에 등극하였다. 콘차이토로의 아이콘 와인인 돈 멜초는 세계적인 권위의 와인 전문지 100대 와인에 총 8번 선정되어 칠레 와인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으며, 플래그십 와인 까르민 데 페우모는 칠레 와인 중 로버트 파커 최고 점수 97점을 받은 와인이다. 이렇듯 콘차이토로는 최고급 와인부터 트리오, 프론테라 같은 합리적인 가격대의 와인까지 전세계 와인 애호가들의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 와이너리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